

## 이국서 만난 마음 속의 고향 '잠녀'

재불화가 이정은씨 22~9월25일 자연사랑 24~30일 김정문화회관서 개인전  
1990년 타계 남편 추모 20주기 겸한 행사, 바이올리니스트 아들도 동행해

등록 : 2010년 08월 22일 (일) 17:14:41  
최종수정 : 2010년 08월 22일 (일) 17:14:4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출신 재불(在佛)화가 이정은씨(61·본명 박정순)가 '그리움'을 한가득 싸안고 고향에 왔다. 아니 들었다.

22일부터 9월25일까지 표선면 자연사랑미술관, 24~30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각각 '해녀'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큰 물'을 찾아 제주를 떠났던 그 때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마음만은 여전하다.

대정읍 하모리 출신인 그는 지금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남편(고 이원영 박사)을 따라 프랑스에 갈 때만 해도 자신이 화가가 될 것을 예상치 못했다. 1990년 귀국을 앞두고 간암으로 남편을 잃은 이 작가는 그대로 프랑스에 발을 묶었다.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를 지탱하는 것은 다른 아님 제주바다, 그리고 잠녀였다.



제주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은 화가.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강한 생활력으로 자신감 넘쳐하던 잠녀는 그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1998년 잠녀를 주제로 한 첫 개인전과 함께 '해녀의 사계절'이란 시를 발표한 이후 그녀의 캔버스에서는 늘 잠녀가 있었다.

한없이 투명하고 가벼운 푸른색 일색이던 그녀의 그림이지만 이번 제주 전시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다.

지난해 개인전 준비를 위해 제주를 찾은 길에서 만난 잠녀와 잠녀들의 삶 때문이다. 제주전시를 위해 새로 53점을 작업했다는 이 작가는 "그 전에는 그저 자유롭고 신비한 느낌이었지만 약 없이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든 작업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잠녀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남편 2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주 전시에는 역시 프랑스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이영표씨(31)가 동행했다.

고향에 오기 위해 '큰 집'을 샀다는 이 작가는 돌아가는 길에는 부피는 같지만 무게는 한참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

이 작가는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제주는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있다"며 "한 2년 정도 자전적 소설을 쓸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문의=787-3110(자연사람), 739-3548(김정문화회관).